

한눈에 보는 축산 통계 **축산유통 통계누리**

축산 통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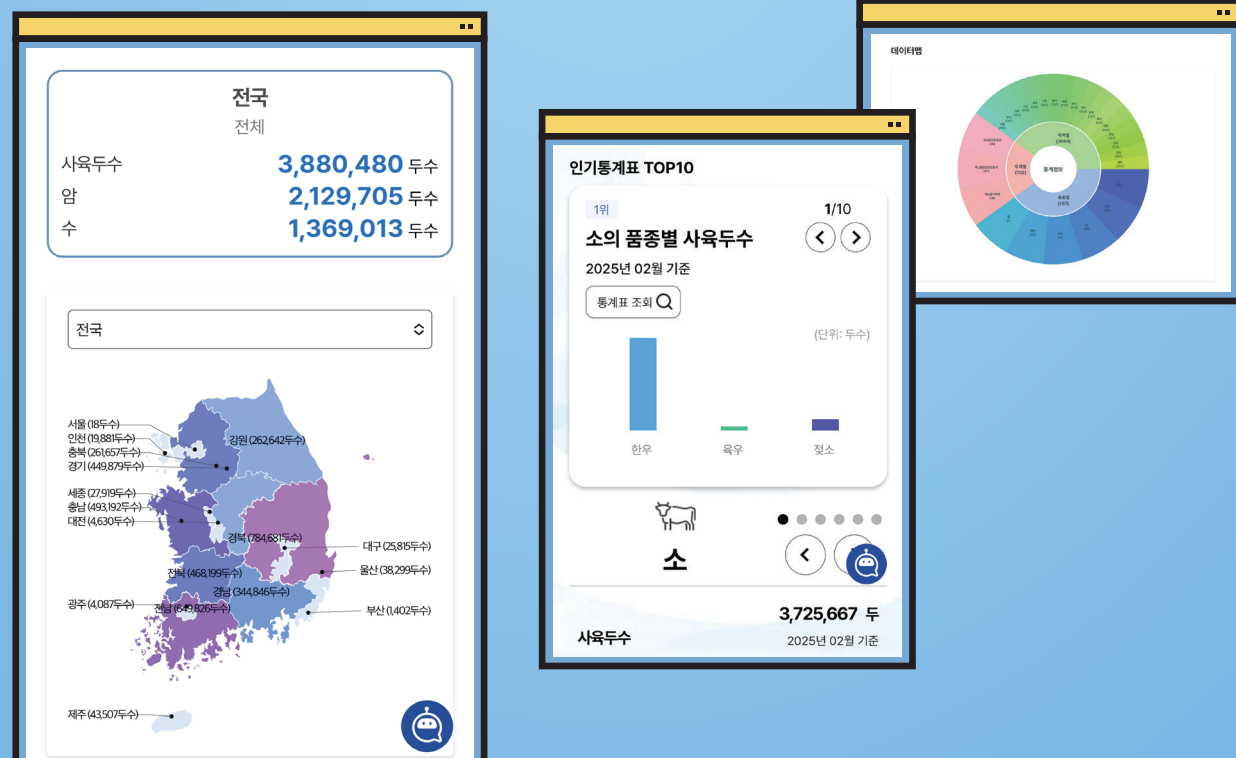
- ✓ 지역 통계, 데이터맵 등 시각화된 통계 정보 제공
-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 가능

축산유통 통계누리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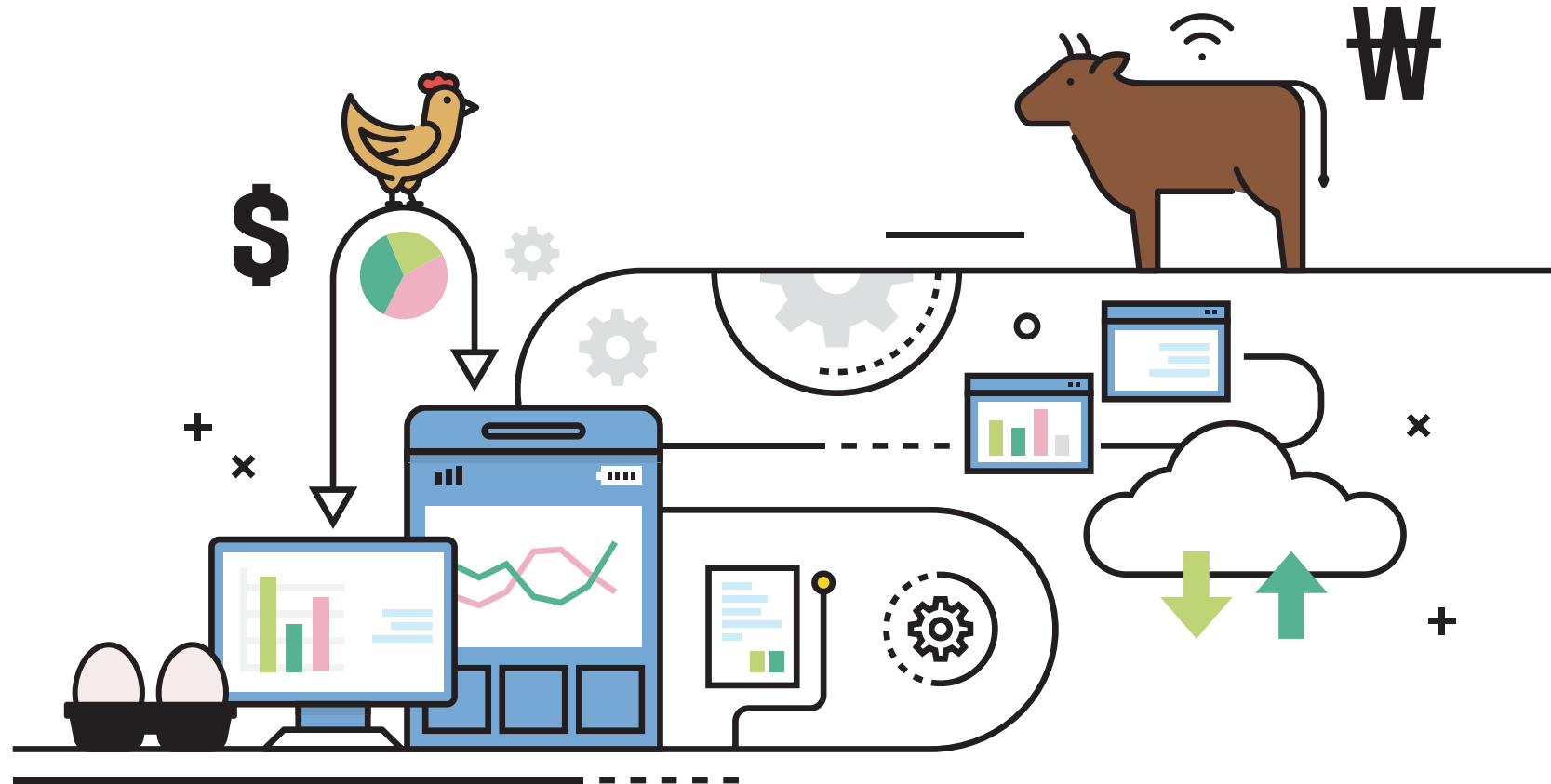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던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의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소 이력 데이터에 더하여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등 6개 축종의 사육, 도축, 등급판정, 유통 가격 통계 정보가 제공됩니다.



KAPE in 카페인

축산유통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표 매거진

새로운 시작,
봄을 품은 축산물 수급 이야기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CONTENTS

2025 SPRING
Vol. 296



발행일 2025년 3월 25일
발행처 축산물품질평가원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등록번호 세종 바 00031
발행인 박병홍
편집·기획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
Tel 044.410.7000
홈페이지 www.ekape.or.kr
편집·디자인 전우용사촌 02.426.4415

- @chukpyeong_official
- facebook.com/ekapepia
- blognaver.com/ekapepia
-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색

편집을 마무리하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번 봄호에 흠여져있는 구슬을 잘 꿰어낸 멋진 진주 목걸이 같은 '축산유통정보 다봄'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전국에서 모은 '신입사원' 보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푸릇하게 솟아나는 봄 새싹을 보니, 올봄 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집니다.

만나다 遇

- 02 · KAPE 이슈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년 이렇게 다가갑니다
- 04 · 커버스토리
“축산업의 나침반,
한발 앞서 시장 안정을 견인합니다”
| 유통정보본부 수급지원처
- 10 · 현장 1
강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팀장
“축평원과 협업으로 예측 정확도 높여…
AI 기반 모델로 오차 줄여나갈 것”
- 13 · 현장 2
최성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
연 12회 축산 보고서 발간…
공급과 수요 균형 잡힌 예측으로
- 16 · 논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전통산업인 농업에
‘첨단’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다
- 18 · 정책
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
한우와 함께 수출하는 이력·등급정보
- 20 · KAPE 人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취미도 열정도 부자인 새내기랍니다”

더하다 加

- 24 · KAPE 뉴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 공급 확대 外
- 26 · 축산업 이슈
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外
- 28 · 데이터로 보는 축산 1
2월 축산물등급판정 통계
- 30 · 데이터로 보는 축산 2
3월 축산물 소비트렌드 인사이트
- 32 · 데이터로 보는 축산 3
2분기 글로벌 축산업 분석 및 전망
- 34 · 데이터로 보는 축산 4
2월 축산물이력 데이터로 본 한우시장

통하다 通

- 35 · 톡톡(Talk Talk)
TMI 슬기로운 직장생활
- 36 · 놀이터
돼지고기 껍질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 37 · 소통
축산물 미로찾기 & 독자편지

- ☑ KAPE in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웹진으로도 손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KAPE in의 수신을 원치 않을 시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044.410.700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년 이렇게 다가갑니다

축산물 품질평가

품질평가 방식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등급제품의 유통과 가치소비 확산을 지원

- 돼지 등급 기준을 '규격' 중심으로 간소화
- 품질평가 자동화 및 데이터 피드백 강화
- 등급계란·등급꿀 및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소비 확대

축산물 이력관리

이력제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편리한 이력신고·조회 서비스 제공

- 이력제 QR 인식으로 유통업소 신고 자동화
- 제도 이행 점검 강화,
이력정보 국민 이용 활성화
- 이력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지원

축산유통 정보관리

유통시장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축산물 유통·소비정보 수집을 다양화하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 구축

- 유통조사 품목 추가 및 전자조사 확대
- 축산물 가격정보 이용 활성화 추진
- 축산유통 데이터 연계 확대 및
고객 유형별 맞춤정보 서비스 제공

축산유통 혁신

생산·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유도 및
축산유통 종사자 인적역량 강화를 지원

-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및 ICT 기술
지원 정책 내실화
- 가축 출하·도축 관련 전산관리 체계
표준화,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및
서류 전자화
- 소 사유기간 단축 유도 및 축산유통 분야
전문 교육체계 마련

COVER STORY

유통정보본부 수급지원처

“축산업의 나침반, 한발 앞서 시장 안정을 견인합니다”

단 한 번의 연결만으로 축산유통 및 수급 전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로 구축됐다. 지난해 말, 축평원이 운영해 오던 ‘축산유통정보’와 ‘축산물수급지원플랫폼’의 기능이 통합되면서다. 2023년부터 추진해오던 ‘축산유통정보 플랫폼 다봄’의 구축사업에 참여해 온 수급지원처 구성원들을 만나 축산 수급 현황과 전망 등 올해 중점 추진 업무들에 대해 들었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사진. 김성용 Studio 돌담



왼쪽부터 수급지원처 추헌우 차장, 김소연 과장, 이호연 과장, 김효선 처장

“올해 수급지원처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축산유통정보 플랫폼 다봄’의 3단계 구축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수정과 개선을 통해 사이트의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매월 축산물 수급전망 및 분석 연구를 통해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축산 수급 관련 보고서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이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도 발족한 바 있고요. 또 2년 전, 우리원 내에 구성된 정부 차원의 ‘한우수출협의회’와 함께 민간의 한우 수출사업 지원업무도 지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수급지원처의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효선 처장이 들려준 올해 부서의 핵심 업무들이다. 수급지원처는 국내 축산물의 수급분석 및 전망과 수급정책 지원업무를 위해 2023년 초에 신설된 부서. 2년 전, 첫 출범과 함께 시작된 업무가 ‘축산유통정보 플랫폼 다봄’(이하 ‘다봄’)의 구축사업이다. ‘다봄’은 그동안 축평원이 운영해 오던 ‘축산유통정보’와 ‘축산물수급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부서원들

원플랫폼’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난해 12월 말 오픈했다. 이전까지 축산물 유통가격 위주로 운영돼 오던 사이트에서 축산 수급 관련 정보들까지 총망라하여 축산유통정보의 통합 사이트로 진화한 것이다.



수급 전망, ‘수급경보 신호등’을
주시하라!



‘축산유통정보 다봄’ 바로가기

“실제로 그동안 플랫폼이 유통정보는 많았으나 수급 관련 정보들이 부족한 데다 여러 기관별로 분산된 측면도 없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다봄’을 새로 구축하면서 유통과 수급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보자는 취지였죠. ‘다봄’에 접속하면, 축산물 관련기관 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한곳에서 통합·맞춤형 축산유통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등으로 축산유통정보 최대 사이트가 된 ‘다봄’은 정보 소유자 및 소비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이 특히 강점으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정보검색이 간결하고, 간편해졌다. 메인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생산자·유통인·소비자’는 단 한 번의 연결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 또 이전과는 다른 ‘다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축종별 공급과 가격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급현황판’ 제시다. 또한 단·중·장기 한우 공급량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수급경보 신호등과 정책을 보여주는 ‘한우수급상황판’을 구축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수급상황판에는 올해 돼지 축종을 추가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 ‘다봄’은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수급 관련 정보를 분석, 그 전망과 데이터를 ‘수급경보 신호등’이라는 기능으로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축종별로 장기적인 수급 예측모형을 만들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생성된 장단기 등 시기별 수급경보 신호등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더 쉽게 축산 수급 동향을 예측하고, 또 전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봄’ 플랫폼 구축사업의 실무담당인 추현우 차장은 “이처럼 시기별 수급경보 신호등 제시를 통해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도 관련 정책을 좀 더 수월하게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까지 아우르며 거시적으로!**



‘축산업 분석 보고서’ 바로가기

축평원에서는 NH투자증권과 손잡고 매달 ‘축산업 기업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2년 말에 도입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신설 조직인 수급지원처에서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축산 환경에 이르기까지 축산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전망하는 축산업의 흐름, 핫 이슈 등 축산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축종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그 예측 결과를 적용하여 관련기관의 다양한 수급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년여 동안 수행해온 이 사업은 축산물 수급 관련 정책들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지요.”

김효선 처장은 “현재 축산 트렌드와 이슈 등 매월 세분화된 주제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축산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자랑했다. 올해 3월 보고서에는 ‘지정학 리스크에서 정치 리스크로 전환’된 글로벌 축산업 환경의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국제 곡물시장 환경과 환율, 유가 변동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축산 관련 국제적인 질병 이슈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한편, 국내 축산업에서는 ‘공급 부담은 완화하고, 수요 개선은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분석 전망을 선보였다. 곧,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으로 그동안 하락세였던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 사업의 큰 차이점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해외 경제에서부터 수요 부문까지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현우 차장은 또 “이와 같은 분석과 전망이 특히 외부의 축산 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면, 특히 사업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고 귀띔했다.

한우 수출 확대와 판로 개척 지원, 해외에서 한우 인지도 향상 중

최근 정부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 중 하나로 한우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2월, 축평원이 수출 활성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우수출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해부터 홍콩, 말레이시아, 몽골, UAE 등 아시아 시장을 필두로 한우 수출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류 문화와 한우를 접목하는, 현지 맞춤형 홍보를 전개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해외 현지 조사와 홍보 지원으로 현재 해외에서 한우의 인지도가 조금씩 향상되는 중입니다.”

김효선 처장은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방역 정보 등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축산유통정보 ‘다봄’에서 수급현황을 살펴보는 부서원들

라면서 “축산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등급제와 이력제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법과 고시의 개정으로 민간의 수출 활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부서에서 수출지원 업무 담당인 이호연 과장은 “수출 현장에 직접 가보니, K-콘서트와 같은 문화 행사에서 한우 레시피 소개 및 시식회 등의 판촉 행사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만족도가 컸다.”라면서 “지난해 개발한 ‘수출 한우 라벨링’ 프로그램 및 다국어 이력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우가 해외 구매자들에게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겠다.”라고 소개했다.

“앞으로는 축산물 수급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이트가 ‘다봄’ 플랫폼이면 좋겠습니다”(김효선 처장). 또 축산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재처럼, 참고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추현우 차장). 품질 좋고, 저렴한 고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다봄’이기를 바랍니다(이호연 과장). 저처럼 ‘우리 동네 싼 고기가 어디 있지?’ 할 때, 바로 다봄에서 제공하는 축산물 가격정보 서비스인 ‘여기고기’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김소연 과장).”

수급지원처 구성원들이 앞으로 축산유통정보 플랫폼 ‘다봄’에 거는 기대와 바람이다. 🍎

축산물 가격비교
‘여기고기’ 바로가기



수급지원처 부서원들의 말.말.말.

“올해 맡은 업무의 목표는요?”

“수급지원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전 축종의 수급 상황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우리원의 예측모형을 완성하고 운영해 나아가는 것!”



김효선 처장

“축산 관련 모든 정보를 ‘다봄’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최선을!”



추현우 차장

“우리 한우가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진!”



이호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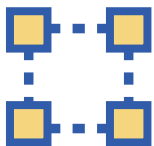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다봄’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전!”



김소연 과장

축산유통정보 ‘다봄’ 이렇게 활용하세요!

축산유통정보 플랫폼 ‘다봄’은
생산·유통·소비 등 축산물의 전 주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유통인,
그리고 축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디자인된 것이
‘다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생산자

‘생산자’에 접속하면, 실시간 경락가격·산
지가격, 사육규모 등 **축종별 수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생산에서 공급과
잉은 아닌지 등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예
측할 수 있는 수급 상황을 첫 화면에서
‘**수급경보 신호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워서 출하
할 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지 등
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료
값 변동은 없는지 등 축산농가에서 필요
한 정보들을 ‘다봄’에 접속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유통인

‘유통인’ 접속에서는 먼저 한우·육우·돼지 등의
실시간 경락가와 도매가, 그리고 육계와 계란
의 도매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한우
(부위와 등급)와 돼지의 **부위별 포장가격**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곧, 축산 유통업체에서 고기를 구매할 때 필요
한 맞춤형 정보들을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했
다. 또 유통 중 재고량을 조사하여 재고의 현황
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고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여기고기’ 서
비스에 주목하자. 이곳에서 QR코드를 입력하
면, **축산물 가격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전국의 한우, 돼지, 육계 및 계란 등 축종별 소
비자가는 물론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하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실시간 소비자 가격까지 상세
히 검색할 수 있다. 축산물 소비자가는 다시 대
형마트, 슈퍼마켓과 정육점 등 판매장소 유형
별로 세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 페이지에서는 한우와 돼지의 식육부위별
용도, ‘국물을 맛있게 내는 법, 고기의 성분이 부
위에 따라 다른 이유’ 등처럼 알토란같은 **식육
상식**들을 볼 수 있다. 🍴



‘축산유통정보 다봄’에서는

접속하면 첫 화면에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종합정보를 선택해 맞춤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실시간 경락가격, 유통단계별 가격은 물론 수급 동향과
S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예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유통정보 플랫폼
‘축산유통정보 다봄’ 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강지석 팀장

“축평원과 협업으로 예측 정확도 높아… AI 기반 모델로 오차 줄어나갈 것”

축산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동향 분석과 수급 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와 함께
정밀한 관측을 통해 축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행.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팀장 강지석입니다. 저는 축산물 시장 동향 분석과 수급 전망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업체, 정책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국내 주요 농축산물인 총 36개 품목의 관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중 축산 품목을 관측하는 축산관측팀의 관측 품목과 주요 업무 및 역할을 소개해 주신다면.

농업관측센터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농축산물 32개 품목과 밀, 콩, 옥수수 등 국제 곡물 4품목의 관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관측팀은 한육우, 돼지, 젓소, 육계, 오리, 산란계에 대한 관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시장 동향 분석과 수급 전망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 농가 및 시장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해당 품목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사육, 공급, 가격 등의 관측 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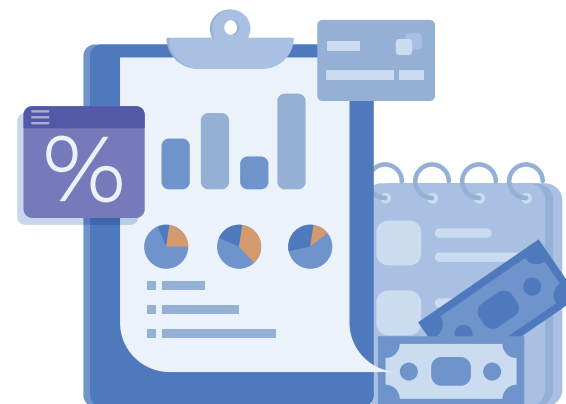
축산물 수급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관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 기법과 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합니다. 또한, 생산자 및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 전망을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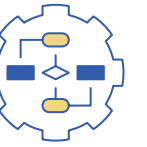
축산물의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축산물 가격 예측을 위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산자의 사육 의향, 생산비, 가축 질병 등 공급 관련 변수와 경제 상황, 트렌드 변화 등 수요 관련 변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도 축산물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는 어떻게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요? 협업으로 거둔 주된 성과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예측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농업관측센터와는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축 마릿수 정보와 축종별 경락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롯하여, 최근에 제공되고 있는 소비자패널의 소비 정보 등은 관측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산관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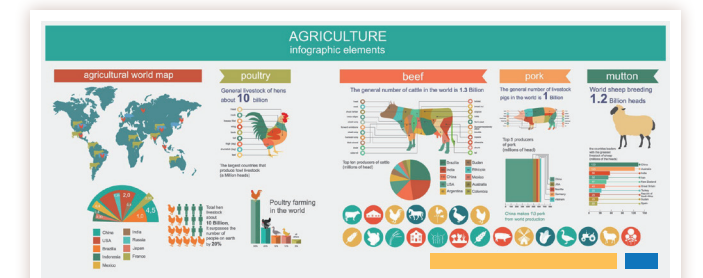
신종 전염병, 기후변화 등으로 수급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때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다양한 전염병, 기후변화 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축평원이 매달 발간하는 ‘축산업 분석 및 전망 보고서’는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축산 분석 보고서는 주로 생산과 유통 등 공급에 치중되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3년 전, 축평원과 NH투자증권이 손잡으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 있는 축산업 분석과 전망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최성종 수석연구원은 이 사업의 원년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업무팀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 축평원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自助金) 담당자들까지 축산 전문가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초안을 의제로 토론회를 거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축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고서는 분기별로 각각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첫 달은 글로벌 축산업 분석 및 전망, 두 번째 달에는 국내 축산업 분석 및 전망, 세 번째 달은 기업 또는 시기별 이슈가 주제다. 이처럼 분기별 3가지 주제로 연간 12회의 축산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2025년 2분기 국내 축산업 분석 및 전망
공급 부담은 완화, 수요 개선 뒷받침 필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최성종 수석연구원

연 12회 축산 보고서 발간... 공급과 수요 균형 잡힌 예측으로

금융 분석 및 연구 전문가인 NH투자증권 최성종 수석연구원은 3년 전부터 축산업 분석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축평원의 ‘축산업·기업분석 및 전망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다. 지난 3월 19일,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그를 만나 올해 국내의 축산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사진: 김성용 Studio 돌담



축산물 수급의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높은 변동성은 예측 오차를 높이므로 저희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예측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시작되므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슈 발생 시 적극적인 교류와 협업으로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관측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주요 화두는 지속 가능한 축산, 친환경, 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합니다. 이중에서는 올해는 특히 AI와 국제정세 변화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전망대회를 여는 등 중장기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축산업 전망과 관련한 주요 화두와 트렌드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축산업의 주요 화두는 지속 가능한 축산, 친환경, 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합니다. 이중에서는 올해는 특히 AI와 국제정세 변화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열풍인 AI는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희 역시도 AI 기반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축산물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축산물 수급 여건 변화, 수출입 동향 역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 인가요? 또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다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관측 결과가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입니다.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계 기법과 경제 모형 이외에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측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축산물 수급 안정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분기별로
각각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첫 달은 글로벌 축산업 분석 및 전망,
두 번째 달에는
국내 축산업 분석 및 전망,
세 번째 달은 기업 또는
시기별 이슈가 주제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 축산 변동성 커질 전망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22년 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시기였어요.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했죠. 이는 축산농가 경영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업을 단지 농업 분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마침 금융쪽의 시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며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저희 NH투자증권에는 농업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올해 2분기 보고서의 글로벌 축산 동향의 타이틀은 ‘지정학 리스크에서 정치 리스크로 전환’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러-우 전쟁과 중동지역 긴장감, 이스라엘 분쟁 등의 지정학적 이슈로 원자재, 유가,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는 요인이었다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관세 이슈가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졌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결국 축산업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글로벌 축산 환경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에 비해 후퇴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도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기업에서 유용한 기초자료 활용 때 보람”

“관세전쟁은 현재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캐나다,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축산업에서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 문제는 이미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미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의 소만을 수입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를 통해 다른 산업군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선

점하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한미 FTA 관련 부분들이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변동성에도 국내에서는 최근 한두 해 동안 한우의 공급과잉이 부담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가고 있어 점진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소비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 성장률도 둔화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반적인 상황의 분석을 보면, 소비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최 수석연구원의 첨언이다. 또 농산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배합사료는 가격 인상이 전망되면서 그만큼 농가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사업의 보고서가 축산물 가격에 대한 매크로 분석이다 보니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우자조금의 대규모 행사 기획을 추진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때도 이 분석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모 무역기업의 임원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축산업 현황과 주요 국가의 상황을 강연한 적도 있었지요.”

이 사업의 결과물이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때마다 사업을 이끄는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최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곡물시장 이슈 분석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취재와 분석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는 최 수석연구원은 “개인적으로도 국내외 축산업 현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연차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온 것 같다.”라며 지난 3년을 돌아봤다.

분기별 3회 차 주제가 ‘축산업계 핫 이슈’인 만큼 오는 4월 보고서의 주제는 바로 ‘축산업과 AI’. “AI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고 있고, 축산업에서도 스마트축산으로 이미 도입이 되고 있다”라면서 “AI와 축산의 미래에 대한 자료들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정리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

최성종 수석연구원은...

2009년 농업경제연구소에 입사하여 2년간 농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이후 농협중앙회를 거쳐 2017년부터 NH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리서치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요 업무는 회사채 관련 분석과 전망. 지난해부터는 ‘크레딧전략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대학에서는 수학을, 대학원에서 금융공학(석사), 박사과정에서는 응용경제를 전공하면서 식품영양 분야에 대한 공부도 병행한 바 있다. 이때의 공부가 지난 3년 동안 수행해 온 축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통산업인 농업에 ‘첨단’이라는 날개를 달아준다

글 이문수 농민신문 기자



농업기관이라고 하면 으레 떠올리는 선입견이 있다. 농축산물이 생물이다 보니 전통적·보수적이면서도 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이런 그릇된 인식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조직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다. 축평원이 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훑아보면 전통산업인 농업에다 ‘첨단’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발전하는 축산물 평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

사실 축평원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올해 축산분야를 맡게 돼 기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축평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기관 이름에도 있듯이 ‘축산물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한우다. 한우를 먹을 때 투플러스나, 원플러스나, 1등급이나 따지게 되는데 이 등급을 매기는 곳이 바로 축평원이다.

돼지도 소처럼 등급을 매긴다. 가끔 고기에 보라색이 보이는데 등급을 표시하는 인장이 찍혀서 그렇다. 식용색소를 사용한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이렇듯 축평원이 없는 식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품질을 알려주니 건전한 축산물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축산물에 신뢰감을 불어넣어 준다.

품질평가에도 새바람이 분다. 축평원이 최근 ‘한국형 돼지 품질평가 장비’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자동화 촬영 장비를 이용해 도체 전반에 대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품질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식이다. 축평원의 노력 덕택에 등급 판정을 하는 똑똑한 AI는 ‘오래된 미래’가 됐다.

‘꿀 등급제’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꿀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생산·검사·소분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꿀 수입 개방에 대비해 국산 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다. 과거 한우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는데 꿀 산업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 등급 표시가 붙어있는 달콤한 꿀 제품을 사서 맛볼 날이 머잖았다.

“

축평원이 없는 식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품질을 알려주니 건전한 축산물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축산물에
신뢰감을 불어넣어 준다.

”



다변화하는 업무 &
스마트 축산의 미래 선도

축평원은 곤충산업 육성에도 앞장선다. 이쯤 되면 축평원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을 자아낼 만하다. 2023년 12월 20일 축산법상 곤충을 가축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곤충 유통 활성화와 홍보’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대부분 농가가 영세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표준화한 사육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커지는 해외 곤충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곤충의 날 행사(9월 7일)를 개최해 곤충의 미래 가치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축평원과 가까이하면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롭다. 생산자가 축평원이 내놓은 ‘축산유통정보’ 앱을 깔다면 실시간 경락가격, 개체별 경락가격, 기간별 경락가격, 축종별 경락가격을 스마트폰에서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다. 소비자의 삶을 풍요롭게 할 기능도 눈에 띈다. 앱 안에 축산물 소비자가격란을 클릭하면 지역별·업체별·업체별

가격을 바로 알려준다. ‘여기고기’를 클릭하면 자기가 사는 동네 마트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축평원은 스마트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축산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해 사양관리 최적화, 약취와 탄소 저감, 가축방역 관리 강화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다.

스마트 축산 도입 초기 농가 현장 밀착 1대1 멘토링 지원, 보급 농가 장비 유지·보수, K-스마트축산 수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축산종사자와 수요자에게 축산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축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대표적이다.



축평원이 이뤄가는
‘축산강국 대한민국’

축평원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쭉 정리해보니 우리 농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소·돼지·닭부터 꿀과 곤충까지 축평원이 다루는 축종도 실로 다양하다는 점도 놀랍다.

국민에게 안심할 만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첨단기술과 농업을 결합시키는 축평원의 5년 후, 10년 후 미래가 어떨지 기대가 크다. 외국 곳곳을 나가면 접하게 되는 알파벳 ‘K’를 단 스마트축산단지, 최고 등급 천연꿀을 매일 먹으며 건강을 지키는 소비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이 출하한 소·돼지 경락가를 실시간으로 알게 될 생산자를 상상하게 된다. 축산강국 덴마크·독일·프랑스의 농업 관계자가 새로운 축산강국 대한민국을 찾아 축평원을 견학할 날이 금방 올 것 같다. 🇰🇷

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

한우와 함께 수출하는

이력·등급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한우의 이력정보와 등급정보를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글·사진_수급지원처



해외에서도 한우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외 한우 라벨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두 차례 홍콩의 판매점, 식당 등을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해외 한우 유통업체에서는 한우의 등급과 비엠에스(BMS, 근내지방도)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개체별 QR(큐알코드)을 생성할 수 있고, 부위명 등을 입력 후 라벨지를 출력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우 수출이 가장 활발한 홍콩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개발했으나, 홍콩 외의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 버전을 추가했으며 추후 몽골, 말레이시아 등 한우 수출국의 언어가 추가된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실행화면



라벨지 출력물 예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확인! 안심하고 먹는 한우

한우와 함께 등급정보도 수출하기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개발하고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2023. 8. 21.)를 제정했다.

이력·등급정보를 통해 해외 소비자가 한우 생산·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한우가 다른 소고기와 차별화된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 외에도 돼지, 벌꿀, 계란 등의 수출도 활발해지면서 해당 축산물의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한 고시가 개정 절차에 있으며, 축산물별 수출 대상국에 맞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가 다양한 축산물의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시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어 및 영어 등급판정확인서

현장 애로사항 해결 OK! 한우 수출협의회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농협, 협회, 한우수출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한우 수출협의회가 운영됐다.

협의회에서는 한우고기에 대한 고급화 및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1+등급 이상만 공급하는 것으로 제한해 왔던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기준을 1등급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협회와 한우수출업체들의 요청이 있었다.

한우수출업체는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안건은 참석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수출 한우고기의 품질기준은 구이용이 1등급까지, 구이용 이외에는 모든 등급이 수출될 수 있도록 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이에 대한 효과로 한우의 총수출량은 49.5톤을 달성했고 이 중 말레이시아 5.3톤, 몽골 3.87톤, 캄보디아 0.54톤, 사우디아라비아 0.57톤, 특히 홍콩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39.22톤을 수출했다.



한우수출협의회 회의 모습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취미도 열정도 부자인 새내기랍니다”

취미도 열정도 부자인 새내기들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자기 몫을 당당하게 해내는 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고 뚝뚝뚝 걸어가겠다는 이들의 당찬 포부를 들어봤다.

공통질문

Q1. 나의 취미생활

Q2. 선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평가직

정승학 # EN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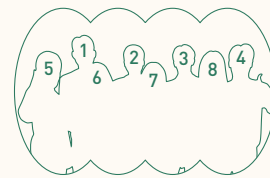
A1 전 세계인의 스포츠인 축구를 좋아합니다.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 내뿜는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즐겁습니다.

A2 배움에 있어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나아감에 있어선 멈춤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서 계신 선배님들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혁 # ISFJ

A1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골프를 즐겨 칩니다. 공을 칠 때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A2 이론적 지식이나 실무가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임하며 잘하겠습니다.



1. 정승학 2. 김재혁 3. 이상훈 4. 어윤용
5. 오은비 6. 차혜민 7. 윤영지 8. 최세령

이상훈 # ENFJ

A1 공놀이입니다. 축구, 농구, 족구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A2 선배님들께서 이루어내신 축평원의 눈부신 발전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저도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어윤용 # ENFJ

A1 볼링을 즐깁니다. 강의 영상을 찾아보며 혼자 배운 실력이지요.

A2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오은비 # ISFP

A1 영화를 즐겨 봅니다. 특히 스릴러나 SF 장르를 좋아해서 에일리언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았어요.

A2 열심히 배워 ‘1인 몫’은 거뜬히 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차혜민 # ISFJ

A1 필라테스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요.

A2 프로 평가사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지 # ENFP

A1 요가예요. 몸과 마음 둘 다 챙길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A2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세령 # ENFJ

A1 자전거를 타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 즐거합니다.

A2 신규 평가사로서 배우려는 태도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상원 # ISTJ

A1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이 아주 즐거워요.

A2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오세현 # ESTJ

A1 기타 연주 & 음악 감상

A2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워서 고기 보는 눈을 가진 훌륭한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김운용 # ISTJ

A1 야구 경기 관람입니다. 응원팀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A2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송명규 # ENFP

A1 요리입니다. 양껏 푸짐하게 만들어 먹으면서 만들 때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멍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A2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서상원 2. 오세현
3. 김운용 4. 송명규
5. 이은지 6. 백희영
7. 김다인 8. 이가람

이은지 # ESFJ

A1 디저트류 같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서 예쁜 카페를 자주 찾아다녀요.

A2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1인 몫을 충분히 해내는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백희영 # ISTP

A1 드럼 연주입니다. 드럼을 연주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재밌어요!

A2 믿음직한 후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김다인 # ISFP

A1 야구 보기 & 제빵

A2 앞으로 선배님들처럼 전문적인 평가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가람 # INTJ

A1 고기 요리 & 제빵

A2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행정직

김도담 # INTJ

- A1** 명상&독서! 주로 정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 A2**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며 축평원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신준오 # ISFP

- A1** 영화를 좋아해요.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를 풀어 몰두하기가 좋고 감성적 연결을 통해 삶에 위안이 되기도, 기쁨을 주기도,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 A2**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겠습니다!

한진영 # INFJ

- A1**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 감상하기
- A2**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련 # ISFP

- A1** 음악감상. 90년대 노래를 특히 좋아해요!
- A2**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유주 # ESFJ

- A1** 콘서트&공연 관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현장감이 느껴지는 걸 좋아해요.
- A2** 배울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이유주,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이정규 # INFJ

- A1** 캠핑 장비 모으기
- A2**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되도록 꾸준히 성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정환 # ISTP

- A1** 헬스&운동
- A2** 신입직원으로서 모르는 일이 많은데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아연 # ISTP

- A1** 스포츠 관람. 농구·배구·야구를 좋아해서 1년 내내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어요.
- A2**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소연 # ENFJ

- A1** 맛집 찾기. 저장해놓은 맛집이 대략 100군데 정도인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맛집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A2**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주이 # ISFP

- A1** 산책하기. 회사 근처에 산책코스가 있는데, 봄이 되면 점심을 먹고 산책에 나서고 싶어요.
- A2** 아낌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운영직

조유진 # INFP

- A1** 칵테일 만들어 먹기
- A2**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두 # ISFP

- A1** NBA 보기. LA 레이커스 팬이에요!
- A2**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은 # ISFJ

- A1**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 A2** 앞으로 선배님들께 배워 한 걸음씩 나아가고 회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김도담 2. 신준오 3. 한진영 4. 권혜련 5. 이유주 6. 이정규 7. 권정환 8. 권아연 9. 김소연 10. 김주이



1. 조유진
2. 김응두
3. 인정은

KAPE NEWS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 공급 확대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급식 공급이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까지 확대됐다.

이번 급식 공급은 축평원의 인증과 충남

도청, 대전충남양돈농협·포항축산농협·바른 축산 등 농가 기술지원·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 및 업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진행된 저탄소 축산물 급식 공급은 증가하는 저탄소 인증 농장과 급식 관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상품 마케팅 교육 신청하세요!

축산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 식품 유통교육

원에서 ‘축산유통과 축산상품 마케팅 입문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축산업 마케팅 경향을 반영한 이론 수업과 실습을 함께 진행해 참여자의 빠른 실무 적용을 돕는다. 축산종사자라면 누구나 4월 24일까지 aT 농수산 식품 유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4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축평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점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4점을 획득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89.0점)와 전체 기관 평균 점수(63.0점)를 훨씬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이는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한 데이터 오류 개선 등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온 결과로 평가받는다.



‘사랑의 헌혈’ 통한 생명 나눔

축평원은 2월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년 상·하반기 임직원이 참

여하는 헌혈 행사는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사내 헌혈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각 기관장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자들에게 관련 질한 무료 검사 혜택과 기념품 등을 제공해 더욱 많은 직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온라인 축산물 판매 투명성 높인다

축평원은 2월 28일 한국온라인홈쇼핑협회 회의실에서 ‘통신 판매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로 통신판매의 투명성을 높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온라인홈쇼핑협회 회원사인 7개 민간 기업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교류됐다.



‘등급 꿀 유통 활성화 간담회’ 개최

축평원은 2월 27일 세종시 본원에서 등급 꿀 유통·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유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양봉농협을 비롯한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12개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인식 확산 유도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이날 특수 밀원 정보에 대한 QR코드 제공 방안은 업계의 큰 공감과 협조를 끌어냈다.



지원 NEWS

부산울산경남지원,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 개최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2월 24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올해 제1차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 및 농협 한우지에 정기총회에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울산경남축협 조합장, 농협사로 부울경지역 지사장 등이 함께했다. 올해는 임원 선출과 축산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히 현재 축산업이 기후변화, 환경규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강원지원, 강원대 학생 대상 축산 현장견학 진행

강원지원은 지난 2월 4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한우농가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한우농가 견학은 원주시에 있는 이희규 농가에서 협조받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인 (주)서신을 방문하여 식용란 선별과 포장 과정 등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등급판정과 계란이력제 운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축산업 ISSUE

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① 자율방역 강화, ② 사전 예방 시스템 효율화, ③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④ 방역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농가 단위 차단방역은 강화하는 한편,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방역과 함께 차세대 국가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환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축전염병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여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럼피스킨 2종 가축질병으로 관리 완화

농식품부는 소 가축 질병인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



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농가가 자율접종하도록 접종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또 럼피스킨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 관리 수준을 완화한다.

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 사업’ 대상 기업 6곳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기업들은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지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과 자재를 설치하고 실제 작물 재배 성과를 증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과 함께 북미·중국 등 스마트팜 신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핀셋 관리’로 전환

올해부터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연 3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



부는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저조농가·미흡농가로 구분하고 백신항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는 등 고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절기, 축산농장 환경관리 요령

출처_ 농촌진흥청

소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낮에는 충분히 환기한다. 낮에는 소가 일광욕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린다. 우사 내 깔짚을 자주 교체해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해 준다. 송아지는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고, 백신을 접종해 질병 예방에 힘쓴다.

돼지



돼지는 온도에 민감해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육 온도가 16℃에서 높게는 35℃까지 달라 돈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기가 잘 안돼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밤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준수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닭



계사 내 방한 설비를 서서히 제거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어린 병아리는 체온 조절 능력이 부족하므로 초기 1주 동안은 32~34℃를 유지하고 1주일 간격으로 약 3℃씩 온도를 낮춰 20℃ 전후가 되면 난방을 멈춰도 좋다. 또한, 겨울철 최소로 유지하던 환기량을 조금씩 늘린다. 🌬️

2월 축산물등급판정 통계

| 빅데이터분석처 |



자세히 보기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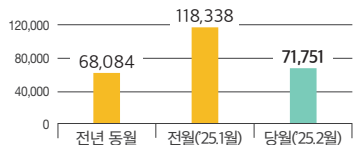
소 등급판정 물량

- 2월 등급판정물량은 71,751두로 전월(118,338두) 대비 39.4% (46,587두) 감소, 전년 동월(68,084두) 대비 5.4%(3,667두) 증가

(단위: 두)

구분	도축물량	등급판정물량
금년 누계(2025.1.~2.)	184,591	190,089
전년 동월(2024.2.)	63,352	68,084
전월(1월)	112,508	118,338
당월(2월)	72,083	7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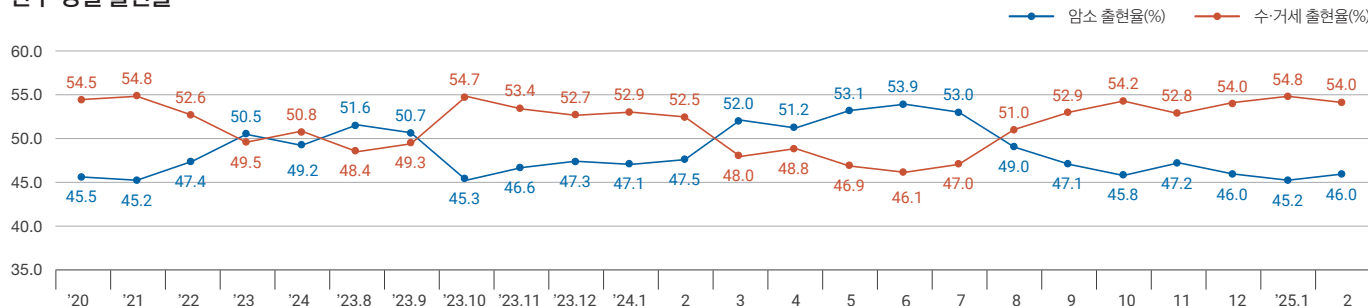
데이터 비교



한우 성별 출현율

- 한우 암소 출현율은 46.0%로 전월(45.2%) 대비 0.8%p 증가
- 한우 수·거세 출현율은 54.0%로 전월(54.8%) 대비 0.8%p 감소

한우 성별 출현율



한우 등급별 출현율

- 한우 등급판정물량은 62,585두로 전월(107,931두) 대비 42.0% (45,346두) 감소, 전년 동월(59,484두) 대비 5.2%(3,101두) 증가
-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8%로 전월(78.6%) 대비 0.6%p 감소
 - 한우 거세 육질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40.8%, 1+등급 30.0%, 1등급 20.6%

(단위: %, %p)

구분	2024년	2025년 누계	당월(A)	전월(B)	증감(A-B)
1등급 이상	90.9	91.4	91.4	91.4	0.0
1++등급	39.4	39.8	40.8	39.2	1.6
1+등급	29.4	30.3	30.0	30.5	-0.5
1등급	22.1	21.3	20.6	21.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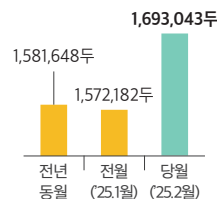
한우 경락가격 동향

- 전국 도매시장의 kg당 평균경락가격은 17,355원으로 전월(17,615원) 대비 1.5%(260원) 하락, 전년 동월(16,467원) 대비 5.4%(888원) 상승

돼지

돼지도체 등급판정 물량

- 2월 등급판정물량은 1,693,043두로 전월(1,572,182두) 대비 7.7%(120,861두) 증가, 전년 동월(1,581,648두) 대비 7.0%(111,395두) 증가



돼지도체 경락가격 동향

- 전국 도매시장(탕박)의 kg당 평균경락가격은 5,040원으로 전월(5,427원) 대비 7.1%(387원) 하락, 전년 동월(4,475원) 대비 12.6% (565원) 상승

닭

- 2월 등급판정물량은 6,253천 수로 전월(5,997천 수) 대비 4.3% (256천 수) 감소, 전년 동월(5,670천 수) 대비 10.3%(583천 수) 감소
- 2월 등급판정률은 2025년 1월 전국 도계물량(농림축산검역본부) 72,340천 수 대비 8.6% 판정

계란

- 2월 등급판정물량은 116,922천 개로 전월(112,310천 개) 대비 4.1% (4,612천 개) 증가, 전년 동월(84,591천 개) 대비 38.2%(32,331천 개) 증가
- 2월 등급판정률은 전국 계란생산개수 1,412,093천 개 대비 8.3% 판정

*전국 계란 생산물량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통계의 전분기 일평균 생산개수에 해당 월의 일수(28)를 곱하여 산출

오리

- 2월 등급판정물량은 1,383천 수로 전월(1,433천 수) 대비 3.5% (50천 수) 감소, 전년 동월(1,178천 수) 대비 17.4%(205천 수) 증가
- 2월 등급판정률은 2025년 1월 전국 도업수수(농림축산검역본부) 3,852천 수 대비 35.9% 판정

말

- 2월 등급판정물량은 31두로 전월(27두) 대비 14.8%(4두) 감소, 전년 동월(32두) 대비 3.1%(1두) 감소
- 2월 등급판정률은 2025년 1월 전국 도축두수(농림축산검역본부) 71두 대비 43.7% 판정

자세한 내용은 『월간』 축산물등급판정통계(2025.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축산물 소비 트렌드 인사이트

| 유통정보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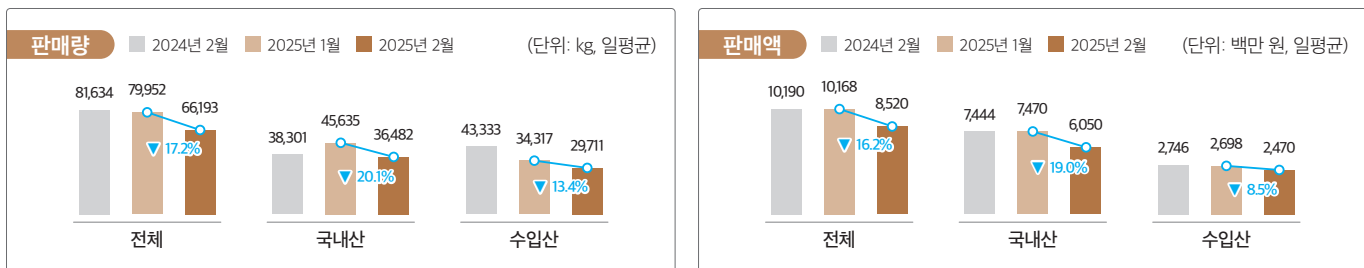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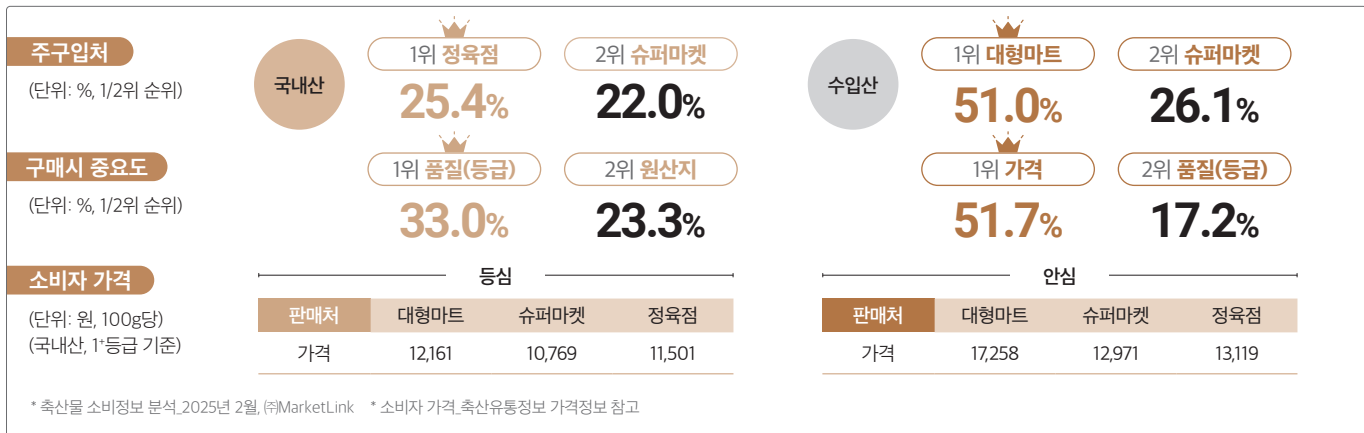
소고기 판매 동향 (POS 데이터)

• 2025년 2월 전체 소고기 판매량은 전월 대비 17.2%, 판매액은 16.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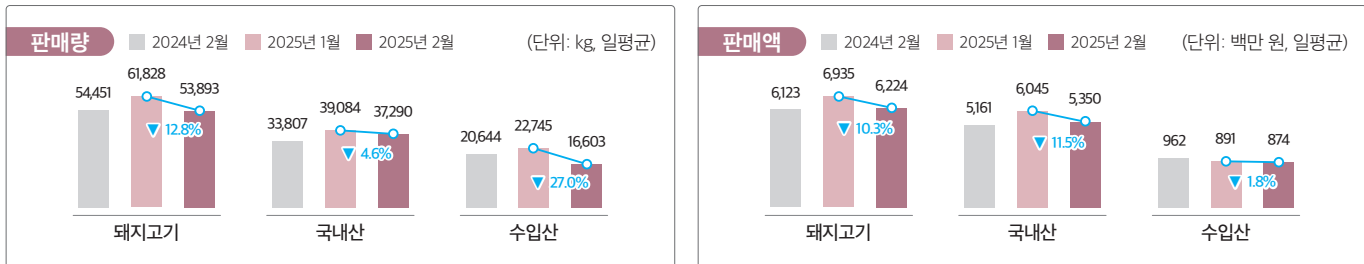
소고기 소비 동향 (패널 데이터)

• 국내산은 주로 정육점에서 구매하며 품질이 중요, 수입산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하며 가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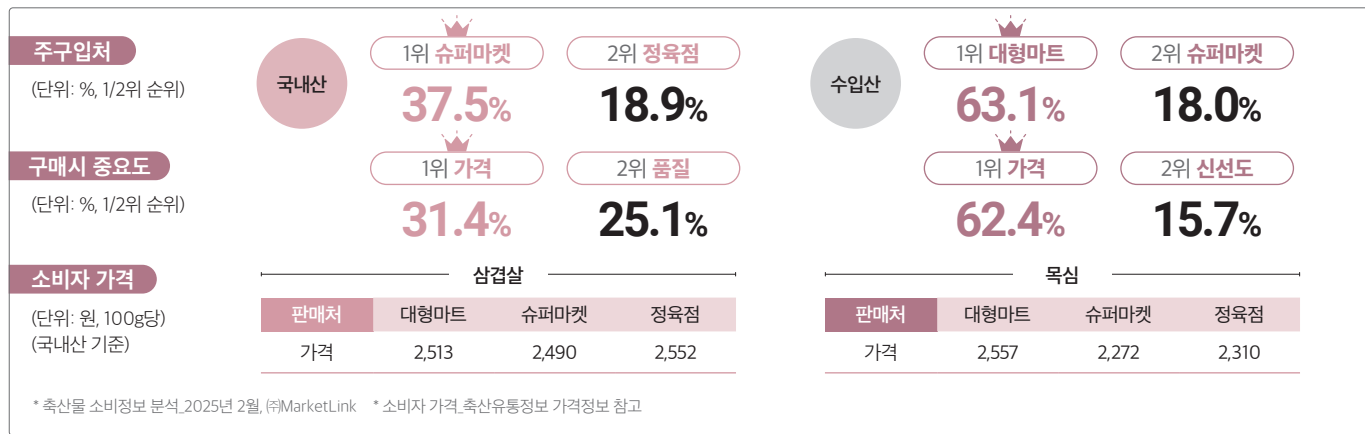
돼지고기 판매 동향 (POS 데이터)

• 2025년 2월 기준 전체 돼지고기 판매량은 전월 대비 12.8%, 판매액은 1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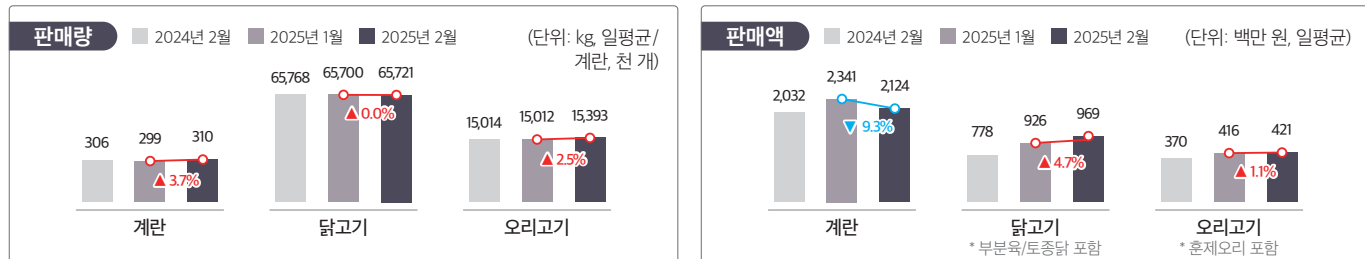


돼지고기 소비 동향 (패널 데이터)

• 국내산은 주로 슈퍼마켓에서 구매, 수입산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하며 국내산, 수입산 모두 가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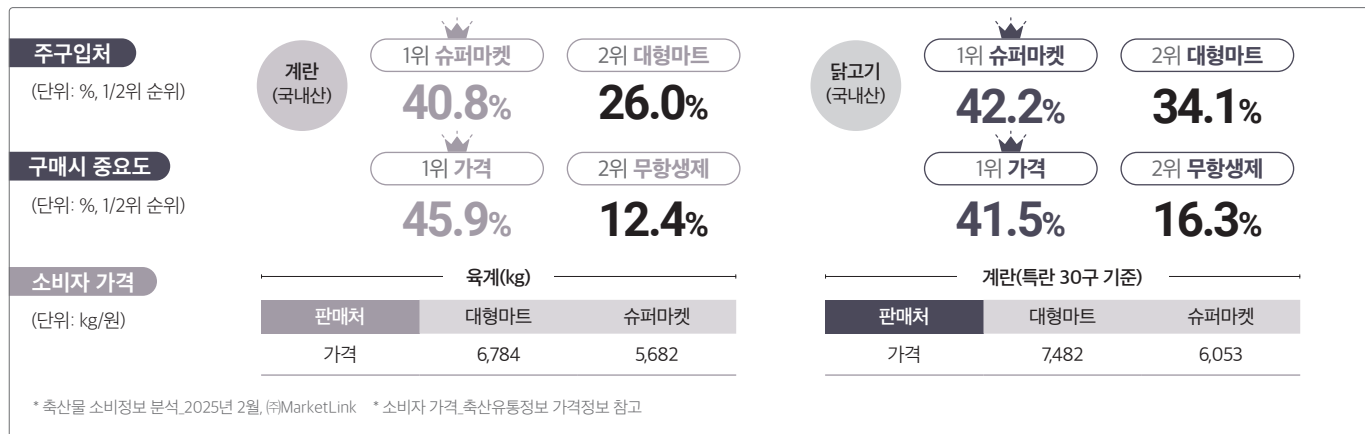


계란·닭고기·오리고기 판매 동향 (POS 데이터)

• 2025년 2월 기준 전체 계란 판매량은 전월 대비 3.7% 증가, 판매액은 9.3% 감소
닭고기 판매량은 0.0% 유지, 판매액 4.7% 증가 / 오리고기 판매량 2.5%, 판매액 1.1% 증가

계란·닭고기 소비 동향 (패널 데이터)

• 계란은 슈퍼마켓, 닭고기는 대형마트에서 구입 비중이 높으며, 구매 시 중요도는 계란과 닭고기 모두 가격이 중요함

축산물 소비트렌드는 전국 대형마트 및 체인슈퍼 1천여 개소의 축산물 POS 데이터, 소비자 3천 명의 실제 소비 및 구매 감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pi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분기 글로벌 축산업 분석 및 전망

| 수급지원처 |

지정학 리스크에서 정치 리스크로 전환

글로벌 경제 및 무역시장 변화와 전망

글로벌 경제는 둔화된 성장세 지속 예상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보다 큰 폭 상향된 반면 미국 외 지역의 성장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2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소 보수적인 금리인하 계획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금리인하 흐름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중앙은행들은 자국 경기 흐름에 맞춘 금리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5.4%를 기록하며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2025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시선이 높고 향후 경제성장 동력을 담겨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어 춘절 이후 중국 당국이 제시할 경기부양 대책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점진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BOJ(일본중앙은행)는 지난 7월과 같은 급격한 엔화 강세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 조정에 신중하게 나서고 있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기모멘텀으로 강달러 국면 연장

달러지수(DXY)는 주요 6개국(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통화와 비교해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

로 2025년 1월 달러지수는 11월 말 대비 3% 상승하는 등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여타 지역 경기 부진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나머지 지역 간 금리 차이가 쉽게 축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미국 외 선진국 간 실질금리 차이가 확대되며 달러지수 강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대선 이후 달러지수 내에서는 유로존,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두드러집니다.

전 세계 석유 수급은 '공급우위' 전환 예상

OPEC(석유수출국기구) 국가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 원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영향으로 2025년 중으로 계획하던 원유 감산 해제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시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국유지 시추 허가 절차 완화, 신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등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이변 '중립', 곡물 가격 급등 방어 요인으로

최근 전망에서 라니냐(La Nina) 발생 확률이 낮아지고 있고 기간도 짧아 이상기후는 리스크 변수로만



자세히 보기

글로벌 환경 및 질병 이슈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반구(미국 중심) 수확기를 지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 파종과 작황기 동안의 라니냐 기후 여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노선 이탈을 예고한 트럼프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부터 취임 직후 파리협정을 재탈퇴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선에서의 이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성향의 인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며 반기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보와 별도로, 전 세계는 NDC에 주목

각국은 2025년 2월까지 상향된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35년 NDC를 제출한 UAE(아랍에미리트연합)와 COP30 의장국인 브라질 외 다른 국가들의 상향된 감축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는 기후위기 대응에 우호적 입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EU의 친환경 기조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ASF와 HPAI 글로벌 질병 동향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 야생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P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시 동절기가 도래하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H5N1형 감염이 젖소, 알파카,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어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미국 우육 공급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돈육 공급량은 증가 전망

최근 USDA 전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 내 우육 공급량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0.6%)할 전망

주요 축산국 동향
미국

유럽

이나, 2025년 2분기와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5.2% 감소할 전망이다. 과거 대비 낮은 공급량, 높은 가격 레벨과 환율 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내 돈육 공급량은 2025년 매분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수출은 멕시코, 콜롬비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아시아로의 미국산 수출 물량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량 증가 속 돼지 도매가격 하락

2024년 10월 누적 수출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유사합니다. 중국(-4.9%), 일본(-0.3%), 영국(-0.5%) 등 수출 상위 국가로의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필리핀(+26.9%), 한국(+8.6%), 베트남(+10.5%) 등으로 수출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EU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국(미국, 캐나다, 브라질) 대비 가격 경쟁력은 낮은 수준입니다.

호주

생우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모습

호주축산공사(MLA)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 이어 2025년 도축마릿수와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산 수출량 증가와 미국산 수출량 감소를 감안할 때 2025년에도 호주산 소고기 수입 비중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돼지 도축마릿수 높은 수준 유지

2024년 2월 이후 돼지 도축마릿수는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공급 레벨은 높아 중국 내 공급량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춘절 전후 돈육가격과 양돈마진은 재차 상승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높은 공급량과 중국의 제한적인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월 축산물이력 데이터로 본 한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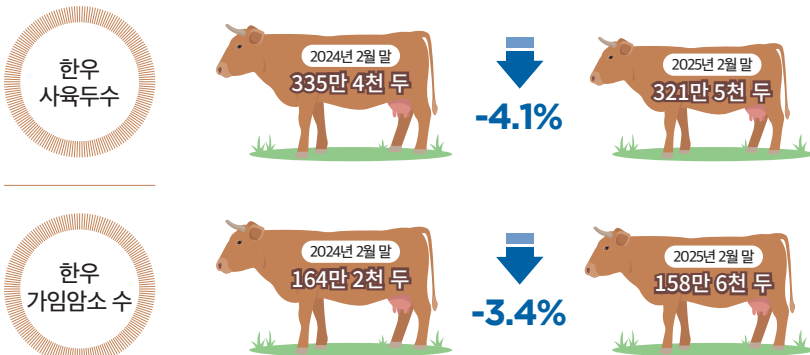
| 빅데이터분석처 |



자세히 보기

한우 사육 및 가임암소 사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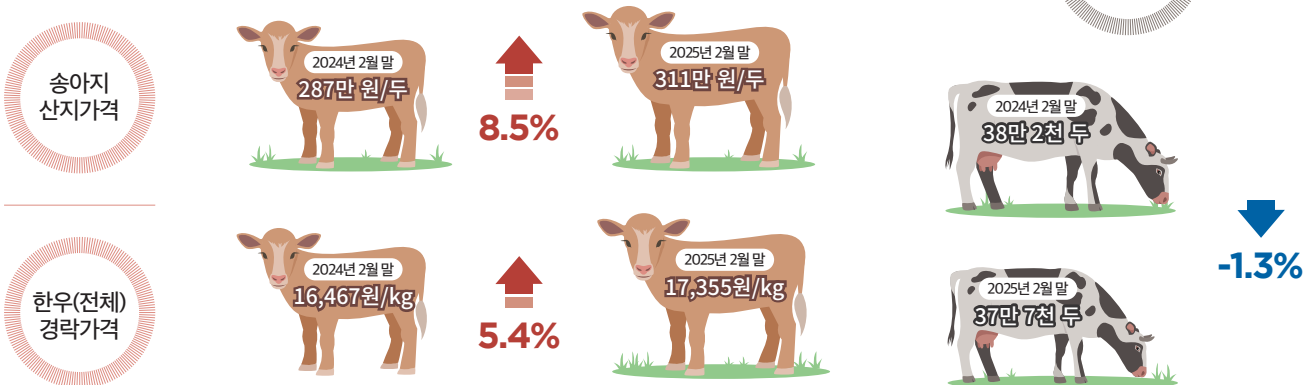
- 한우 사육 및 가임암소 수 소폭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한우 사육두수 감소(-4.1%), 가임암소 수도 감소(-3.4%)



* 사육마릿수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 통계누리(mtrace.go.kr/stats)
* 가임암소 수: 15개월령 이상(기타 프리마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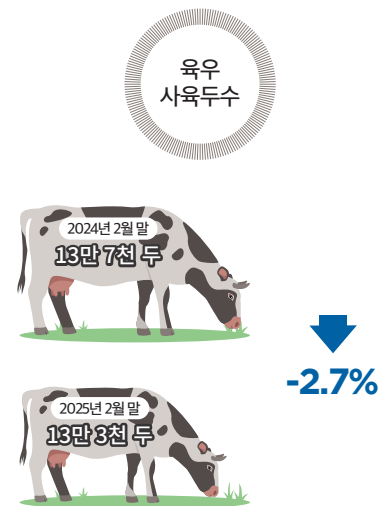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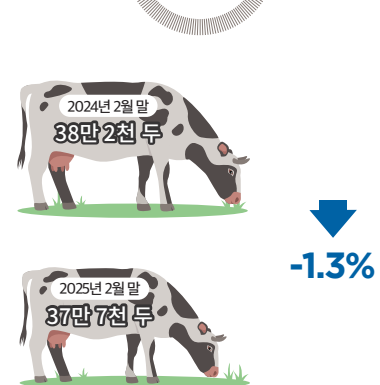
송아지 산지가격 및 한우 경락가격

- 송아지 산지가격 및 한우 경락가격 상승 추이
- 전년 동기 대비 송아지 산지가격 상승(+8.5%), 전년 동기 대비 한우 경락가격 상승(5.4%)



* 송아지 산지가격 출처: 농협 축산정보센터(6~7개월령 평균) * 한우 경락가격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 한우 가격 기준: 결함, 도태견고우 및 등의 제외

육우 및 젖소 사육현황

젖소
사육두수

TMI 슬기로운 직장생활

소소한 재미와 작은 배려가
만드는 즐거운 일터. 우리들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 찾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운영지원처 이상현 과장

‘호로록 봄’. 요즘 정주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의 첫 회 제목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에
요망진 애순이의 인생이 짝하면서 애뜻한데요. 본원에서 텃밭을
분양받아 꽃을 심으며,
올해는 봄이 호로록
지나가지 않도록 봄과
함께 느리게 오래 걷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처 박민형 과장

몸살로 하루 쉬고 나온 다음 날, 팀장님께서 책상에 ‘툭’
두고 가신 쌍화탕! 따뜻한 팀장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



제주지원 조은지 과장

옥상 텃밭에서 만난 봄, 제주지원에 봄이 왔습니다~
직장 속 작은 싹표 같은 이 공간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작은 행복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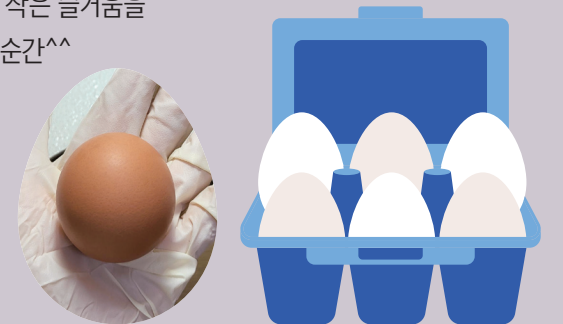
대전충남지원 이현지 과장

신규직원 교육 중
동기들과 탁구를 하며
활력을 얻고,
친밀해진 경험을 통해
재충전 시간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대전충남지원 박주현 과장

계란 등급판정 중 완벽히
둥근 계란을 발견하며,
업무 속 작은 즐거움을
발견한 순간^^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

돼지고기 껍질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1+

등급판정인

0 제 1
주

위생검사인

간혹 돼지고기 껍질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잉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식용색소이므로 먹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의무적으로 품질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장에 판매됩니다.

등급판정 후 등급을 표기하기 위해
껍질에 도장을 찍는데,

이때 붉은색 식용색소인 적색3호를 사용합니다.
등급판정을 받기 전 위생검사를 통과하면 합격 도장을 껍질에 찍는데,
이때는 보라색을 띠는 식용색소를 사용합니다.

모든 식용색소는 관련 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참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식육의 합격표시에 따른 표시”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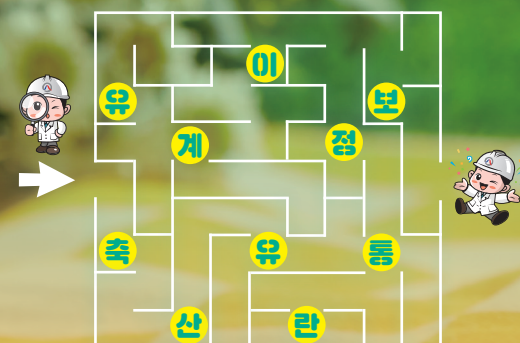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
축산물품질평가원, 2024

독자참여

Event 1

축산물 미로찾기

축산 정보를 찾아가는 미션! 미로를 탈출하며 찾은 글자를 차례로 이어 아래 이름을 맞춰주세요.



고객 맞춤으로 다양한 축산 유통과
수급 정보를 제공하는

? ? ? ? ? ? 다름

HINT. 〈커버스토리〉 코너(8~9p)를 읽으면 정답이 보여요!



응모하기

참여기간 : 3. 25.(화) ~ 5. 25.(일)
참여선물 : 모바일 기프티콘 1만 원권(5명, 추첨)
참여방법 : QR코드를 스캔하여 응답 제출
당첨자발표 : 당첨자 개별 연락 등

지난 호 당첨자
(정답: 계란이력제)
최*욱(5216) / 김*연(2707) / 김*훈(3267) /
박*원(5687) / 윤*욱(9036)

Event 2

독자편지를 보내주세요!

<KAPE in>은 독자님의 읽은 소감을 기다립니다. 독자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독자 편지 주인공으로 선정된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마감은 5월 25일(일)이며, 전달해주신 내용은 <KAPE in> 콘텐츠로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응모하기

지난 호 독자편지

계란산업의 발전을 이끈 계란이력제 글을 관심 있게 보
았습니다. 도입할 때는 실효성 여부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꾸준히 추진하고 실천한 결과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네요. — 류*종 님

축산물 관련 데이터 분석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지속해서 제공하여 축산 현장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훈 님